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선교헌신의 주일

오늘(6.26) 오전 11시 예배는 선교 헌신의 주일로 지키며, 모로코(함베드로, 안사랑)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인도 : 이광근 안수집사

3. 첫날맞이 감사예배 (성찬예식)

2026년 7월 1일(수)은 수요일예배이므로 저녁 7:30분 첫날맞이 월삭감사예배로 진행합니다. 조직신학은 월삭예배를 마친 후 이어져 진행합니다.
성찬준비 : 정현숙 권사, 박제연 집사

4. 맥추감사주일

다음 주일(7.5)은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리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5. 경기서지방회 지방회장 순회 예배

일시 : 2026년 7월 2일(목) 오전 10:00
장소 : 탐동평안교회 (수원시권선구 서둔로 239번길 18)

6. 구역예배

일시 : 2026년 7월 4일(토) 오전 10:30 (교회출발 오전 10:00)
장소 : 임명숙 집사
다음 : 김주형 성도 (애플트리디자인)

7. 2026년 7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5.17 ~ 6.18)

7.14(화)-박창균 성도 7.19(일)-박제연 집사 7.19(일)-문효은 집사
7.21(화)-노강민 형제 7.26(일)-이판순 성도(-6.13)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06/28 박제연 집사
07/05 이광근 안수집사
07/12 임명자 집사
07/19 임명숙 집사
07/26 김혜숙 권사
08/02 정현숙 권사
08/09 박제연 집사
08/16 이광근 안수집사
08/23 임명자 집사

< 애국과 평화의 달 >

행사계획

날짜	행 사 내 용
06/28	선교 헌신의 주일
07/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07/02	수원감찰 지방회장 순회 예배 (탐동평안교회, 오전 10시)
07/05	맥추감사주일
08-10	임명숙 사모 수련회 (2박 3일)
07/12	교회교육주일(주일학교 어린이)
07/19	청소년헌신예배(중고등부)
07/26	교사헌신의주일(교회학교교사)
08/01	첫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08/02	교회학교수련회 중보기도회
03-05	유초등부 하계 수련회(드림캠프)
	중고등부 하계 수련회(드림캠프)
08/09	8.15 해방 기념주일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 행 안 내
주일	교회출발(9:45) ▶정자동(10:00) ▶화서동(10:10) ▶세류동(10:20)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정자동(13:40) ▶화서동(13:50) ▶동탄(14:20)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토요학령부예배		오후	4:00
주일청년부예배		낮	1:3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0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당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당 후 진행)		
쉐 마 학 당	(상당 후 진행)		



주사랑 9권 26호 | 2026년 6월 28일
창립 2017.11.25 | 생령강림 후 다섯 번째 주일/선교주일
기 독 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선교헌신의 주일

서북아프리카 M국/함베드로 안사랑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사야 61:1)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①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②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③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④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⑥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⑦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⑧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해외 선교 주일) 인도: 이광근 안수집사

※ 목 도 사 61:1~3 인 도 자

※ 송영찬송 찬 15장 다 같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 사도신경 다 같 이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 이

성시교독 No.110 선교주일 인도자/회중

찬 송 가 찬 515장 다 같 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대표기도 박제연 집사
(교회학교 교육부장)

※ 성경 봉독 사도행전 16:6~15 (신 215) 박제연 집사

광 고 인 도 자

말씀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담임 목사

봉헌찬송 찬 505장 다 같 이
(오병이어현신 : 이재우 어린이)

※ 축 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주 일 오 후 예 배

오후 1:30 소 그 록

대표기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13:1~30 (신 169)

말씀제목 재지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

말씀인도 담임 목사

수 요 저 녁 예 배

오후 7:30 (조직신학)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살전 5:23 (신 333)

말씀제목 조직신학 : 성결(거룩함)①

목 요 구 역 예 배

오전 10:30 말 은 이

성경봉독 왕하 23:31~24:7 (구 604)

대표기도 말 은 이

말씀제목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

금 요 심 야 기 도

오후 7:30 한승훈 목사

성경봉독 로마서 6:12~23 (신 247)

말씀제목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

새벽 기도회(월~금)

새벽 5:30 사무엘상 묵상

28일월 요 13:1~30 끝까지 사랑을 주신 주님

29일월 삼상 15:32~35 사무엘의 애곡

30일월 삼상 16:1~5 감정이야기 사랑이야기

7/1월월 삼상 16:6~13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2월월 삼상 16:14~23 사울을 삼켜 दें 다윗

3월월 삼상 17:1~11 하나님을 무사하는 골짜기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양기로운 예물 (언금함에 작전 드립니다 / 입금: 2026.06.20. AM 6:00 기준)

십 일 조 : 문동진 임명자 오동영 임명자 아기를 정현숙 한승훈 임명순 / 장사라

주정현금 : 김혜숙 문제호 박제연 이광근 이다남 오동영 임명숙 임명순 임명자

정현숙 한승훈 한학락

감사헌금 : 이광근 박제연(자녀 임명순(생일) 전복순 정현숙 한승훈 임명순

아하브코업홀스쿨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한성결 한은총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건축헌금 : 정현숙

선교헌금 : 김혜숙 한태민

전도헌금 : 장사라(이옥성 장세규 장제경 최란희 장연우 장지우 장은비)

구제헌금 : 정현숙 한승훈 임명순

후원헌금 : 조형자 안양중앙교회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오주교훈음스쿨)



해외선교(모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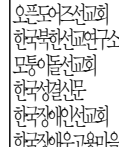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탈북민선교(평화나루교회)



기타 기관 선교



- ⑥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참된 성도의 올바른 관계의 태도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약 2: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하여 대하지 말라
- ⑦ 야고보서 기자는 차별과 편견으로 형제에게 고통을 주는 자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
이라고 했나요? (약 2:13)
공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 ⑧ 야고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연민과 공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약 2:14~17)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
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
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라
- ⑨ 야고보 기자는 선생 된 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약 3:1~2)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 ⑩ 야고보서 기자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나요?(약 3:17~18)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하고 다음에 ()하고 ()하고
()하며 ()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게
하는 자들은 ()으로 심어 ()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 ⑪ 야고보는 성도가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약 4:1~4)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
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 되는 것이니라
(작성하신 답안은 주보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시간에 축복기도를 해드립니다)

- ① 히브리서 기자는 참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간혀 지내지 않고 교회 밖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따라야함을 어떻게 강조했나요? (히 13:12~15)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니라
- ②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약 1:2~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고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 ③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과 환란의 때에 생각에 혼란이 빚어져 행동에 확신이 없는 상태로 치닫게 되는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약 1:6~8)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을 품어 모든 일에 ()로다
- ④ 야고보서 기자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약 1:13~15)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에 끌려 ()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을 낳느니라
- ⑤ 야고보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약 1:19~22)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가 되지 말라

북아프리카 모리코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5월에는 한국의 설날과 추석과 같은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한 해 중 가장 중요하고 큰 가족 행사로 '에이드 크비르(=이드 알 아드하)'라 부릅니다. '에이드 크비르'가 다가올 때 타문화로써 피부로 가장 느껴지는 점은 '양을 희생의 제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임시 양 시장>이 열립니다. 마음에 드는 양을 고르고 명절 당일에 양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양을 끌고 옵니다. 저희 집 앞에서도 아침 7시부터 양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양을 끌고오고, 양을 잡고, 양의 가족을 벗기고, 간지로 설치해둔 도축장에서 부위별로 손질해가는 것을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매년 에이드 때마다 수백만 마리의 양들이 희생됩니다. 올해 에이드 기간 동안 전국에서 소비된 양과 염소가 약 600~700만 마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희생제사는 알라에 대한 순종과 경건함, 가족과 친척, 친구들, 가난한 사람들과 희생된 고기를 나누는 자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명절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이들의 놀라운 문화로만 여겨졌는데, 양을 잡는 의미가 경건함과 종교적 나눔, 기쁨이 있음을 조금 더 알게 된 지금 '라마단 금식기간'과 같이 이런 문화가 곧 자신인 이들의 정체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들에게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영혼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생명의 기쁨과 보람을 나누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속에 때에 따른 순종의 방법들을 알려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들에게 정말 그 빛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딸 소리가 학교친구들과 최근에 부쩍 더 가까워졌습니다. 친밀해질수록 우리들과 다른 이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학교에서 있던 이야기도 매일 해주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는 친구의 속사정을 알게된 것은 엄마가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배에 뒹가다 있어서 집에만 있다고 합니다. 얼마 못 살 거라는 친구들의 잦은 말에 아이가 울었다는데, 이 가정의 아픔이 전해져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아들의 죄도 사해지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기를 위해 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장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저 안타깝다하며 내 이야기같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매일 만나는 이웃들의 일이라 가슴 아프고 마음과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막연한 모로코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보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달 초에는 비자여행도 다녀왔었고, 모로코 남부지역으로 처음 가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남부지역에 다녀온 소식들은 다음편지에서 나누겠습니다. 다녀오면서 베르베르 민족을 향한 소원으로 오래 이 땅을 섬기시는 선생님을 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땅을 향한 마음을 풀어낼 자들을 찾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며 걸어오시는 선생님들 이야기에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북부로 비자여행 다녀오고(편도 7시간 거리), 남부지역도 (편도 6시간 거리) 장거리 여행을 계속 다녀왔습니다. 그 외 일정도 많았던 터라 온 가족들이 병치레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소식에 이런 이야기를 적는 이유는 중요요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로코는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좋다고 하는 병원이 있더라도 병원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진이 많습니다. 평소에도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서 도움이 된 경우를 듣지 못해 스스로가 의사가 되어 판단해보고 여러 약과 항생제를 구비해두고 결정합니다. 함선 기사가 한국에서도 고열이 한 번씩 날 때 40도를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40도 넘는 고열로 아팠습니다. 에이즈크비르와 기간도 겹쳤고, 해열제를 교차로 복용해도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변 선생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현재 열은 괜찮고 몸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우신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순	서	예배진행	인도자	BC	오늘 본문의 연표	Bible
사도신경		다	같이	640	남유다 요시아의 등극	왕하 22:1~20
찬송가	 찬 516장	다	같이	622	요시아의 개혁 운동	왕하 23:1~20
대표기도		말	은이	609	유월절 행사, 므깃도에서 전사	왕하 23:21~30
성경봉독	 왕하 23:31~24:7	교	독		여호야하스의 등극과 통치	왕하 23:31~35
말씀인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	말	은이		여호야김의 등극과 통치	왕하 23:36~24:7
합심기도		다	같이	598	여호야킨의 등극과 통치	왕하 24:8~17
헌금기도	 찬 311장	말	은이	597	시드기야의 등극과 통치	왕하 24:18~21
주기도문		다	같이	586	남유다 왕국의 멸망	왕하 25:1~7

■ 들어가는 말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의 대대적인 개혁에도 남유다 왕국을 향한 심판의 마음을 바꾸실 뜻을 보이신 적이 있었는지, 더 인내하시며 기다리실 의향이 있었는지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요시아 이후 왕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오직 요시아만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며 성결한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오늘날 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들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불렀는지요?

첫째, 하나님이 떠난 불신앙입니다(23:31~35).

요시아가 므깃도에서 이집트의 왕 느고 2세와 싸우다가 전사한 후(BC 610~595), 남유다 왕국의 제16번째 왕으로 여호아하스가 세위됩니다(31, BC 609). 남유다 왕국의 명맥은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진행되어가고 있고, 남유다 왕국의 소망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아하스가 ‘여호와와 눈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32).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시아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대상 3:15).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여호아하스)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첫째 요하난과 둘째 아들 엘리야김이 있었음에도 넷째 아우를 왕으로 추대한 데에는 이스라엘 대신과 백성들의 정치적 야욕이 작용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요시아처럼 반이집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이후 느고 2세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킨 점,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점, 엘리야김이 이집트에게 한동안 충성한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여호아하스는 형을 체치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왕으로 옹립되었지만, ‘조상들의 모든 악을 따라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32). 에스겔은 여호아하스를 ‘사람을 삼키는 법을 배운 젊은 사자’라고 비유합니다(겔 19:3).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린 통치자였습니다.

므깃도 전투 이후 남유다 왕국은 이집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33~35). 느고 2세는 요시아의 배반을 막아낸 후, 앗수르의 아슈르 우발리트 2세와 연합하여 하란에서 바벨론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배 합니다. 이에 느고 2세는 퇴각하면서 아람에 주둔하여 남유다 왕국에 내정간섭을 합니다. 느고 2세는 유다에게 은 100달란트(3.4톤)입니다. 이는 현시가 1kg당 289만원으로 환산한다면 약 98억 4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또 조공으로 금 1달란트(34kg)입니다. 이는 현시가 금 1kg당 가격을 2억 200만으로 환산한다면, 약 68억 7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반애굽 정책을 웅징이기도 하지만, 남유다 왕국이 감당하기에는 그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결국 느고 2세는 이집트로 떠나면서 여호아하스를

폐위 시키고 그 자리에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3개월만의 통치가 끝이 납니다.

요시아의 대대적인 개혁과 영적·사회적·문화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그의 아들세대에 벌어질 상황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통치기간이 불과 3개월 뿐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애굽적인 성향을 갖았던 여호아하스는 결국 애굽의 침략을 받았고, 애굽의 왕으로부터 폐위되었고, 애굽으로 끌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시대·사회·국가 그리고 한 개인의 운명의 실체입니다.

둘째,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불신앙입니다(23:36~24:7).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은 애굽의 왕 바로 느고 2세에 의해 남유다 왕국의 17번째 왕으로 25에 세워졌고 약 11년을 다스렸지만(BC 609~598), 그도 ‘여호와와 눈에 악한 왕’으로 평가 받습니다(37). 특히 ‘그가 조상들의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와 눈에 악을 저질렀다’라는 평가는 요시아 이후의 영적·정치적·외교적·사회적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불의, 불공평, 교만, 탐심, 무죄한 피 흘림, 압박, 폭력 등’ 온갖 악행을 지적했습니다(렘 26:20~23). 여호야김은 곤궁한 백성을 돌보지 않았고, 자신을 위해 크고 화려한 궁을 짓는데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의 부친 요시아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지만(22:19), 여호야김은 선지자를 죽였고(렘 26:20~23), 요시아는 율법책의 말씀을 전심으로 실행했지만(23:25),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렘 36:20~25).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그의 부친 요시아와는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애굽 왕으로부터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애굽에게 바칠 조공을 마련하고 백성에게 무리한 은금을 징수합니다. 실세 강대국에 줄을 서 사대적인 외교를 단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행실이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외교 자체보다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왕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백성,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한 열매를 맺는 시대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일깨우고 심판하는데 주변 두 강대국 애굽과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두 나라가 서로 자웅을 겨루고 바벨론과 아람과 모압과 암몬이 차례대로 남유다 왕국을 공격 합니다. 역사 진행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보다 심판을 위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누가 참된 주권자인지를 보여주는 시대적·사회적·영적 고통의 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죄악의 지적은 기분 나빠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의 애도입니다(시 51:17).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죄의 지적 앞에 ‘심령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인처럼 우리의 기분 나쁜 감정만을 내세우며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을 외면하고 대적합니다(창 4:6~12).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신앙인으로써 우리가 구해야할 기도제목은 ‘자복하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이 주는 영적·시대적·사회적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진실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성결한 성도들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여!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